

# 늘 '만만한' 문화예술비용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탓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경제사정이 썩 좋지 않다고들 한다. 생산성저하, 과소비, 무역적자 등이 들먹여지면서 총체적 경제난국이란 말까지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래선지 정부당국은 최근 소비억제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의 축소를 재검토하는 한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청사 신축, 해외출장비 등 외화예산, 불요불급한 문화예술비용 등을 최대한 줄여 소비를 억제토록 하라"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낸 세금 아껴 쓰며 나라살림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데 물론 군소리가 있을 수는 없다.

문화예술비용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들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넉넉해야 할 까닭은 없다. 다만, 문화예술비용이 언제까지나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치부되며, 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유쾌하지 않은 것만큼은 어쩔 수 없다.

하기는 문화예술비용이 우선순위에 앞으로 나설 때도 있기는 있다. 이번처럼 '삭감'의 경우가 그렇다.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그다지 특별한 대접을 못받는데, 그것을 깎아야 할 때는 특별히 우선적인 대접을 받는 듯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적어도 전체의 1

% 정도는 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6개의 공화국 기간동안, 문화예술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집행돼 우리 경제사정이 나빠진 적은 없다는 것이,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사실인 듯하다.

아껴 쓰자는 데 굳이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불요불급해서가 아니라 '만만하기 때문에'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초 문화부가 정식 출범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정치와 경제의 크고 급한 문제들에 밀려 뒷전에서 소외돼 왔던 문화의 '복권'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점점 엷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에서도 형편이 쪼들리면 책 한권 덜 사고 극장 한번 안가지 않느냐고 한다면 할 말 없지만, 국가백년지대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는 문화예술비용의 책정과 운용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강철주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91호 / 1991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敏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權宰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珍鍊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晝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燁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瑞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龍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燁 | 張必和 | 張會翼     |
| 鄭均圭 | 鄭雲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鍾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韓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미러더스다이스테트판 「잡학사전」에서 부분 발췌한 항목을 소개한다.

▲죽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2, 3대 위의 조상에 관해 아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관습이나 법률에 의해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가문에서는 죽보를 잘 관리하여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죽보를 잘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존 버크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사람이었지만 죽보연구를 학문과 비슷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다. 1820년 버크는 「영국의 귀족과 준남작의 혈통사전」 초판을 펴냈다. 이 책은 보통 「버크의 귀족사전」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속물들의 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매우 괴팍스러운 인물이었던 버크는 그 후 「영국과 아일랜드의 평민신사」를 출판했는데 개정판에서는 책제목을 「토지소유신사 사전」으로 바꿨다. 그는 또 「여류명화 초상화집」도 출판했다. 버크는 그의 아들과 함께 금박장정의 책들을 여러권 편찬했는데 이중에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기사」 「가계가 단절 또는 정지된 영국의 준남작」 「일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왕족」 등이 있다.

버크의 후예들이 편찬한 최초의 책 중에서 현대의 미국 독자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책은 틀림없이 1975

년에 출판된 「미국대통령의 가계」 일 것이다. 죽보학자들은 12명의 미국대통령에게서 왕실의 핏줄을 발견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먼로, 존 퀸시 애덤스, 윌리엄 헨리 해리슨, 벤자민 해리슨, 제임스 뷰캐넌, 에이브러햄 링컨, 윌리엄 S. 그랜트, 제임스 가필드, 시어도 루스벨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그들이다. 리처드 M. 닉슨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직계자손인 것으로 되어 있다.

▲탐정소설 2차대전중 런던시민들은 독일의 야만적인 공습을 피해 방공호로 들어갈 때 읽을 책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들이 고른 책중에는 탐정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중들이 탐정소설에 열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에드가 앨런 포가 1841년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발표함으로써 탐정소설양식을 개척한 이래 일반독자들은 탐정물에 대단한 반응을 보여왔다...그러나 실제의 탐정들이 그들의 가공적인 동료들만큼 명성을 누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에르클 프와로는 미스 마플과 함께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책을 3억 5000만부나 팔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가 추리소설 속에서 그를 죽도록 했을 때는 「뉴욕타임스」의 부음란에 부고가 실리기까지 했다. 실제의 인물이 아닌, 가공인물로서 「뉴욕타임스」의

부음란에 실리는 영광을 누린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설록 홈스는 아직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설록 홈스백과사전」이 나와 있는 정도니까.

▲잡지 흔히 벤자민 프랭클린을 영국식민지에서 최초의 잡지를 발행한 사람으로 꼽는다. 그가 발행한 「제너럴 매거진 앤드 히스토리칼 크로니클」이 미국 최초의 잡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이 잡지는 3호를 내고 폐간한 앤드루 브래드포드의 「더 아메리칸 매거진」보다 3일 늦게 나왔다.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의 우체국장을 하면서 역마의 마부들에게 자기가 만든 잡지만 배달하게 하고 경쟁자의 간행물은 우편물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의 잡지 역시 6호를 내고 문을 닫았다.

이 두잡지와 그밖의 초기 잡지들이 실패한 것은 가격이 비싸고 구독자 수가 적었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 어떤 경우는 1년 구독료가 노동자의 1주일 급여와 맞먹었다. 아무튼 1800년쯤에는 거의 100개의 잡지가 미국에서 간행되고 있었다. 미국 최초의 정치만화를 실은 것은 프랭클린의 「제너럴 매거진」으로 뉴욕의 타락한 태머니홀 정치조직의 두목인 윌리엄 마시 트위드를 공격목표로 삼았다.

▲번역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뜻을 똑바로 전달하는 정확성이야말로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번역의 단순한 실수가 세계역사의 흐름에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다. 그와 같은 일은 1945년 7월 그믐께 일본에서 일어났다. 포츠담에서 모인 연합국측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7월28일 일본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은 모쿠사츠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쿠사츠'라는 단어에는 '무시하다' 또는 '논쟁을 삼가다'의 두가지 뜻이 있다. 수상이 본래 의도한 것은 두번째 뜻이었으나 일본의 동맹통신은 영문기사에서 이를 '무시하다'(ignore)로 번역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에 「일본이 최후통첩 무시하자 미합대 공격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진단기사가 실렸다. 9일후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었다.

컴퓨터는 엄청난 기억능력과 번개 같은 속도 때문에 이상적인 번역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한번은 1500개의 기초 영어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단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게 "Out of Sight, out of mind"를 번역하도록 지시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재빨리 내놓은 대답은 "invisible idiot"(보이지 않는 바보)였다.